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60년 만에 시민들의 실제 교통수요와 이동 패턴에 맞춰 개편된다.

전주시는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축으로 운행된 시내버스 노선이 동서 3개축과 남북 3개축 등 총 6개 축을 중심으로 확대한 전주·완주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운행노선과 운행시기를 확정·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민들의 이동수요에 맞춰 △기존 미운행지구 시내버스 노선 신설 △신규개발지구 노선 확대△완주군 지역

팔달로 중심 1개 축에서 6개 축으로 다양화 미운행지구 노선 신설·신규개발지구 노선 확대

간 연계노선이 신설되는 것이 이번 노선개편의 핵심이다.

이번 개편안은 '전주시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버스통행인구와 통신사데이터 및 신용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유동·통신인구 분석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은 △동산동(팔달로)~한옥마을 △동산동(동부대로)~아זור리 △혁신

도시~서부신시가지~중앙동 △전주역(백제대로)~평화동, △송천동~서부신시가지~평화동 △평화동~한옥마을~우이동 등 6개 축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이에 맞춰 현재 운행 중인 121개 노선 중 57개는 그대로 유지되고, 27개는 부분 개편된다. 또, 중복노선을 중심으로 32개 노선이 폐지되는 대신 전주시에 9개 노선과 완주군 기간선 14개 노선이 각각 신설된다. 5개 노선

은 배차간격 및 운행대수가 조정된다.

노선별로는 안행로와 신덕마을, 완주군 해전리 등 기존 시내버스 미운행지구에는 처음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서비스가 부족했던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하가지구 등 신규개발지역에는 시민들의 이동수요에 맞춰 시내버스가 대폭 확충된다.

또한 환승기반시설이 갖춰진 이서와 삼례지역을 중심으로 시간선제가 시범 도입되면서, 전주를 거치지 않고 완주군 이서에서 삼례까지, 삼례에서 봉동까지 고산까지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된다. 이 노선은 기존 팔달로를 통과하는 노선과 비교해 운행시간이 대폭 감소해 배차간격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완주군민들의 요구에 따라 새벽시간 등 승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남부시장 등까지 탄력적으로 연장 운행된다.

시는 개편에 따른 효과로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현행보다 평균 15분 감소하고, 버스 1대당 평균운행거리도 1.0km 줄어 시민들의 버스탑승 대기시간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8일 송천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전주시 33개 동과 혁신도시 등 34개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노선개편(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종 운행노선은 전주시 주민설명회와 완주군 주민설명회, 노선개편TF 전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철수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개편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선개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는 그동안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축으로 운행돼 온 시내버스 노선이 동서 3개축과 남북 3개축 등 총 6개 축을 중심으로 다양화 되는 전주·완주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14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이용자 중심의 전주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북대치과병원 전영미 진료처장 취임 "다시 찾고 싶은 병원으로 만들 터"

전북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 11일 전영미 치과진료처장과 신임 전영미 치과진료처장에 대한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전영미 신임 치과진료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립대 병원 본연의 기능인 진료, 연구 봉사 교육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치의학발전의 중추적인 병원, 도민들이 믿고 다시 찾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중점 사업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치과병원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자긍심을 가지는 근무환경 조성 △교육과 연구기관의 역할 수행을 통한 훌륭한 치과전문의 배출 △독립치과병원으로의 위상정립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또한 "거점 국립대 치과병원으로서 도민들이 언제라도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병원, 지역민과 소통하고 지

역사회의 발전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해 도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다시 찾고 싶은 치과병원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 모두 서로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전영미 신임 치과진료처장은 현재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직전까지 전북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장으로 활동했다. 전북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과 치의학 교육실장을 역임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전임 박주미 치과진료처장에 대한 감사패가 증정됐다. 지난 2년간 치과병원을 이끌어왔던 전임 박주미 치과진료처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 그동안 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임 전영미 진료처장의 연차들과 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아시아 3대 여행명소 선정

세계적 여행지 '론리플래닛' CNN 보도 통해 세계에 소개

전주가 전 세계 여행객들이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관광명소에 선정됐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출판사이자 세계 모든 배낭여행자들의 지침서로 불리는 '론리플래닛'이 최근 발표한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의 10대 명소(Lonely Planet-Best in Asia, Our pick of where to go in Asia in the next 12 months)'에서 전주가 당당히 3위에 등극했다. 이 내용은 지난 13일 CNN 보도를 통해 전세계에 소개됐다.

특히 전주는 일본 홋카이도, 중국 상해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콘다오, 홍콩, 말레이시아 이포, 인도네시아 페루테란, 태국 트랑섬, 인도네시아 타이츄이 그 뒤를 이었다.

론리플래닛은 사상 처음으로 여행작가들이 직접 아시아 각국의 여행지를 둘러본 결과를 토대로 향후 1년간 꼭 가봐야 할 아시아의 관광명소를 선정했다. 전주는 이번 선정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할만한 매력과 가치가 있는 관광명소로 이름을 올렸다.

조사결과 A씨는 이웃 주민 B씨가 참고에 오토바이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수 기자

며 "한옥의 우아한 곡선의 지붕 아래 박물관, 찻집, 장인의 작업장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또한 "한국이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식도락 여행지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주는 비빔밥의 본고장이자 식도락 여행지"라고도 언급했다.

론리플래닛은 여행작가 레베카 밀너는 전주의 한옥과 한식, 조선왕조의 역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의 길거리음식과 한옥체험, 지만벽화마을, 막걸리 등 최근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템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현재까지는 전주가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그리 눈에 띄지 않았지만, 곧 입소문이 날 것"이라며 전주여행을 적극 추천하기도 했다.

시는 한옥마을이 연간 1000만명이 다녀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인 만큼, 론리플래닛의 집중 조명으로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이번 결과는 전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방증이다"면서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 대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문화도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행인 폭행 2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여자친구와 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30분께 남원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B(41)씨의 뒤통수를 3차례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용주 기자

덕진소방서, 공장·창고시설 소방특별조사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원석)는 14일 관내 공장 및 창고시설 등에 대해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2014년 11월 29일 팔복동 한중제약 공장화재와 같은 대형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추진상태, 공장 시설 내 무허가 위험물 등 사용여부, 용접·절단 등 내부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안진수 기자

이에 따라 소방서는 공장 548개소, 창고 474개소, 폐기물처리장 12개소에 대해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위소방대의 화재대응 및 대피요령과 소방시설 사용법 등 현장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소방훈련 실시여부와 관계자 안전관리사항 숙지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관계자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 평상시 꼼꼼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오토바이 훔친 10대 벌금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하던 10대가 이웃의 오토바이를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14일 한 동네 이웃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10분께 정읍시 칠보면 한 마을에서 B(40)씨의 농기계 창고에 보관된 오토바이(시가 5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웃 주민 B씨가 참고에 오토바이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수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